

독일어 교재에 등장하는 ‘확신’-화법어의 양상 고찰

조국현(한국외대)

1. 이끄는 말

외국어 교육에서 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교재 분석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국현 1998; 신형욱 2000). 교재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특히 대화체 텍스트의 역할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화체 텍스트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주제가 제시되며, 학습자는 대화 속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한국의국어대학교 ‘활용독일어’ 강좌¹⁾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독일어 교재인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이하 DSA)²⁾와 ‘Aufbaukurs Deutsch(이하 AD)’, 특히 이 두 교재에 등장하는 대화체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교재 분석 작업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전형적인 문법 중심 교재인 DSA와 의사소통 중심 교재인 AD에 나타난 교재 구성상의 특징을 기술하고 (i), 이어서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확신 정도를 표현하는 화법적 표현(이하 ‘확신’-화법어)의 역할을 설명하며 (ii), 이를 바탕으로 교재에 나타난 ‘확신’-화법어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교재의 특성과 ‘확신’-화법어의 상관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iii).

1) ‘활용독일어’ 수업은 한 학기에 4시간(3학점)씩, 4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강좌로, 독일어 문법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독일어 활용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을 익히면서 독일어 문장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익히는데 중점을 둔다.

2. 외국어 교육 목표와 교재의 특성

외국어 교육의 목표에 따라 교수법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외국어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도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6차 교육 개정(1992. 6. 30)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외국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이에 따른 교재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의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 및 사용 교재와 그 이전, 특히 전통적인 문법중심 외국어 교육 및 사용 교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문법 중심 외국어 교육에선 텍스트 번역을 통해 특정 문법 사항을 학습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때문에 교재에는 해당 문법 사항을 담고 있는 텍스트, 특히 비대화체 텍스트가 주로 등장하며, 수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에 치중한다.

이에 비해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적 실용성, 즉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모든 언어사용 형태를 골고루 중시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재에는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체 및 비대화체 텍스트가 균형 있게 제시된다: 문법 중심 교재인 DSA의 경우 총 26개의 단원이 문법 내용의 전개에 따라 - 예) 1과: 관사, 동사 현재형, 인칭 대명사, 2과: 명사, 동사 명령형, 의문대명사, 3과: 지시대명사, 수사 - 구성되어 있으며, 비대화체 텍스트와 대화체 텍스트의 비율은 42:18로 비대화체 텍스트가 70%를 차지한다.

반면에 의사소통 중심 교재인 AD는 총 30 단원 중에서 29개의 단원이 의사소통 주제의 전개에 따라 - 예) 1과: 친구와 금전 문제에 대한 대화, 2과: 집주인과의 대화, 3과: 여행 계획에 대한 대화 -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주제 별로 대화체 텍스트와 비대화체 텍스트가 각각 29개씩 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청해용으로 테이프에 녹음된 텍스트를 포함하면 비대화체 텍스트와 대화체 텍스트의 비율은 33:55이다 (비대화체 텍스트 38%).

이러한 비대화체 텍스트와 대화체 텍스트의 수적인 비율뿐만 아니라 단원별 교재 구성에서도 문법 중심 교재와 의사소통 중심 교재는 상반된 특

성을 나타낸다. 문법 중심 교재는 주로 문법 내용 소개 및 설명, 그리고 문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많이 제시하는 전형적인 문법 학습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작성된 텍스트도 문법 사항을 표현하는데 치중하므로 텍스트의 의사소통적 실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의사소통 중심 교재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나 실용문이 주로 등장하며, 교재 내에서 문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연습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DSA의 경우 각 단원은 크게 <텍스트 - 문법 내용 - 연습문제 - 텍스트>의 단순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 단원에서 문법 내용 및 연습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2/3 이상이며, 개별 품사 별로 문법 사항을 설명하고, 곧 이어서 이에 대한 연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AD는 훨씬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대화체 텍스트 - 대화에 대한 질문 - 비대화체 텍스트 - 비대화체 텍스트에 대한 질문 - 구문 예시 - 연습 문제 - 구문 연습 - 청해용 텍스트²⁾ 및 질문 - 문법 설명 - 작문 문제>. 교재 AD는 대화체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대화체 텍스트의 내용을 놓고 묻고 답하며, 대화체 텍스트에 사용된 주요 구문을 예시하고, 이를 구문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반복 연습함으로써 의사소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청해와 작문을 병행하도록 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단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AD에는 연습문제의 비중이 훨씬 낮으며, 문법에 대한 설명도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점검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3. 대화체 텍스트와 의사소통 상황

앞장에서 두 교재의 구성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DSA는 AD 보다 대화체 텍스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DSA는 기초 단계Grundstufe의 독일어 학습 교재이고, AD는 학습자의 독일어 기본 지식을 전제로 독일어 활용 능력을 쌓는데 중점을 두는 교재이

2) 청해용 텍스트는 별도의 테이프에 수록되어 있으며, 교재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하지만 두 교재에 등장하는 텍스트를 꼼꼼히 살펴보면 사용된 어휘와 문법 사항에는 별다른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대신에 두 교재의 성격을 특징짓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대화체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두 교재의 대화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의사소통 상황의 제반 요소를 살펴보자. DSA와 AD의 각 텍스트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i), 핵심 의사소통 행위 내지 대화의 주제 (ii) 그리고 의사소통 참여자의 관계 또는 역할(iii)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교재 DSA>

* 불특정

텍스트 번호 (단원)	의사소통 장소	의사소통 행위/ 대화의 주제	의사소통 참여자의 관계 (역할)
1 (1)	학교	인사, 소개	대칭적
2 (2)	학교/교실	수업 중 질문, 대답	비대칭적 (선생/학생)
3 (4)	역	차표사기	비대칭적 (역무원/여행자)
4 (5)	*	안부 묻기	대칭적
5 (6)	식당	주문, 지불	비대칭적 (손님/종업원)
6 (7)	*	*	대칭적
7 (8)	셋집	방 구하기	비대칭적 (집주인/세입자)
8 (10)	(전화)	*	대칭적
9 (11)	우체국	전보 발송, 송금	비대칭적 (우체국 직원/손님)
10 (12)	슈퍼마켓	장보기	대칭적
11 (13)	길	길 묻기	비대칭적 (보행자/경찰)
12 (16)	관청	서류 작성	비대칭적 (공무원/외국인)
13 (17)	(전화)	*	대칭적
14 (18)	여행사	여행에 대한 정보	비대칭적 (여행사직원/고객)
15 (18)	집	여행 계획	대칭적
16 (21)	집	짐 꾸리기	대칭적
17 (22)	은행	은행 계좌 개설	비대칭적 (은행직원/손님)
18 (24)	*	독일 유학	대칭적

<교재 AD>

텍스트 번호 및 단원	의사소통 장소	의사소통 행위/ 대화의 주제	의사소통 참여자의 관계 (역할)
1	집	금전 문제	대칭적
2	집	의출	대칭적
3	집	여행 계획	대칭적
4	학교식당	노동 허가 문제	대칭적
5	(전화)	주말 계획	대칭적
6	학교	일자리 구하기	대칭적
7	직장	인터뷰	비대칭적 (구인자/구직자)
8	직장	일 소개	비대칭적 (상사/부하직원)
9	카페	아르바이트의 경험	대칭적
10	사진관	여자 친구 사귀기	대칭적
11	길	길묻기	비대칭적 (보행자/보행자)
12	(전화)	소포 분실	대칭적
13	길	교통 사고, 환자 수송	대칭적
14	길	말다툼	대칭적
15	길	아이 돌보는 문제	대칭적
16	차안	새 집	대칭적
17	병원	진찰	비대칭적 (의사/환자)
18	사진관	말다툼	대칭적
19	직장	축구 경기 시청	대칭적
20	집	방문	대칭적
21	직장	회의 참석	대칭적
22	직장	회의, 토론	대칭적
23	축제현장	말다툼	대칭적
24	학교	대학 공부	대칭적
25	관청	직업 상담	대칭적
26	역	마중	대칭적
27	길	시내 구경	대칭적
28	농가	농가 방문	대칭적
29	집	물건 구입	대칭적

우선 의사소통 참여자의 관계 및 역할의 측면에서 두 교재의 대화체 텍스트는 아주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DSA에는 상대적으로 비대칭적 대화가 많고 (9개 = 50%), AD에는 대칭적 대화가 많다 (25개 = 86%).

여기서 비대칭적 대화란 대화의 목적이 대화 참여자 한 쪽의 이해와 관

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지식, 도움 또는 역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대화이다. 이런 대화에는 보통 대화자의 일정한 역할이 주어지고, 대화체 텍스트에는 특정한 구성 요소가 등장하며 일정한 의사소통 기능적 표현이 사용된다. 가령 길 묻기 대화에서는 종종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신형욱 2000):

- ① 처음 말 걸기
- ② 찾는 곳을 묻기
- ③ 찾아가는 방법 가르쳐 주기
- ④ 교통 수단을 묻고 대답하기
- ⑤ 떨어진 거리 또는 걸리는 시간을 묻고 대답하기
- ⑥ 감사와 인사
- ⑦ 모른다고 말하거나 제 3자에게 떠넘기기

이러한 비대칭적 대화 경우에 학습자는 역할 놀이 등의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정해진 패턴의 의사소통 기능적 표현을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다. 때문에 비대칭적 대화는 주로 초급단계의 회화교재에 많이 등장한다.

이에 비해 대칭적 대화는 의사소통 참여자가 어느 한 쪽의 지식, 도움 또는 역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다. 대칭적 대화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공동 이해와 관련해서 서로의 협조, 타협 등이 요구되거나 대화참여자가 각각 자신의 이해를 위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또 의사소통 주제나 상황에 따라 대화 구조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창조적인 사고나 대화 전략이 요구되는 대화는 일반적으로 대칭적 대화의 형태를 띤다. 도표에서 보듯이 표준화된 의사소통 상황을 많이 담고 있는 DSA에 비해, 대칭적 대화가 많이 등장하는 AD는 대화체 텍스트의 수적인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대화체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 즉 대화의 대칭성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적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두 교재가 겨냥하고 있는 학습자는 동일한 부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DSA의 경우 독일어, 독일 문화를 처음 접하는 학생

또는 여행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이들이 독일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로 역, 식당, 우체국, 관청, 여행사, 은행 등 표준화된 standardisiert 의사소통 상황을 담고 있다. DSA의 텍스트가 독일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여행자와 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반면에, AD의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특정인, 즉 독일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이 학업과 독일 생활하면서 겪는 내용, 학생 활동 영역 (아르바이트, 이성 교제) 또는 이웃 내지 동료와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담고 있다: AD의 대화체 텍스트는 - DSA와 비교할 때 - 주인공의 활동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 즉 집, 직장, 학교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13개 = 45%),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적합한 의사소통 주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교재 구성의 학습자 연관 측면: 신형옥 1999 참조).

4. 의사소통 행위와 확신-화법어의 역할

3장에서 지적했듯이 표준화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정형화된 formalisiert 의사소통기능적 표현이 주로 사용된다: 예) 물건값을 묻는 표현, 길을 묻는 표현, 행선지를 묻는 표현, 기차 출발 시간을 묻는 표현 등. 이러한 표현들은 일종의 언어 규범화 과정³⁾에서 굳어진 표현들로, 학습자가 해당 의사소통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별 다른 숙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급 단계의 학습자한테는 표준화된 의사소통 상황과 정형화된 의사소통 기능적 표현에 대한 학습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 형태가 과연 의사소통 행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은 이러한 대화를 익힘으로써 향상될 수 있을까?

의사소통 행위의 본질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내적 경험 innere Erfahrung’(G. Ungeheuer, 1987:316)을 상대방에게 전달, 이해시키는

3) N. Lenke/ H.-D. Lutz/ M. Sprenger, 1995:124ff.

데 있으며 (i), 의사소통 행위의 목적은 이를 통해 상대의 의식 또는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인식 활동을 촉진시키며, 또한 당사자 상호간의 관계를 유지, 개선하는데 있다 (ii)⁴⁾.

화행론에 따르면 의사소통 행위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즉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i) 말하는 이가 자신이 경험한 대상, 사건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등), (ii) 진술된 대상, 사건 또는 사실 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주장, 충고 등)를 전달한다.⁵⁾ 의사소통 행위의 핵심은 바로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올바른 진술과 의사소통 의도의 정확한 전달에 있다.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달리 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내적 경험을 진술하는 경우에 말하는 사람은 진술 내용, 즉 진술 내용의 유효성Geltung에 대해 항상 일정한 주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처럼 진술내용의 유효성에 관한 주관적인 입장, 자세 또는 견해를 화법Modalität이라고 한다 (Bußmann, 1990:490).

기존의 문법 중심 독일어 수업에서는 종종 화법 문제를 단순히 화법조동사의 기능 또는 hoffentlich, vielleicht와 같은 화법적 부사의 고유한 의미 영역으로 취급하거나 화법의 역할을 문장의 기본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요소, 즉 의미상의 변화Modifikation 또는 각색Färbung 요소로서 이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화법은 문장 의미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B. Werner, 1986:5),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에서 교재의 의사소통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목하는 내용은 소위 주관적인 화법⁶⁾에 속하는 ‘확신’-화법이다. ‘확신’-화법은 사실 관계에

4) (Grundfragen, 1985:18)

5) 화행론에 따르면 (i)과 (ii)는 각각 명제적 내용과 언표내적 기능이라고 불린다 (J. Searle, 1983:51).

6) 화자의 특정한 명제적 내용에 대한 진술은 항상 일정한 지식적 바탕 또는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화자는 어떤 명제적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사회적 규범 내지 법 또는 타인의 주장, 주변의 상황(객관적인 요소)을 근거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며, 화자 자신이 자신이 소유한 인식, 판단, 느낌(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진술할

대한 내적 경험을 진술할 때, 말하는 이가 진술 내용의 사실 일치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페터가 온다'는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1) - (4)는 말하는 이의 다양한 확신 내지 믿음의 정도를 표현한다.

- (1) Peter kommt.
- (2) Peter kommt *wahrscheinlich*.
- (3) Peter kommt *tatsächlich*.
- (4) Peter kommt *keineswegs*.

(1) - (4)에는 모두 동사적 화법(Modus⁷⁾의 일종인 직설법이 사용되었다. 알려진 바대로 직설법은 접속법과 달리 진술 내용을 '일반적인 사실'로 전제하는 진술방식이다.⁸⁾ 직설법에 다양한 화법어를 첨가하여 확신의 정도를 가감할 수 있다. (2)의 경우 *wahrscheinlich*를 통해 확신의 정도가 약해지고, 반대로 (3)의 *tatsächlich*는 강한 확신을 표현한다. 이에 반해 (4)는 가장 낮은 정도의 확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 표현된 확신의 정도는 (3) > (1) > (2) > (4)의 순서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 참여자 또는 학습자가 문맥 속에서 적절한 '확신'-화법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진술 내용의 사실 일

수도 있다. 객관적인 요소에 근거하여 *소망, 의지, 허락, 가능, 필연* 등의 유효성이 명제적 내용에 부여되는 경우를 객관적인 화법이라고 부르며 (*Ausnahmsweise darf man Bücher über das Wochenende nach Hause mitnehmen*), 주관적인 요소를 근거로 *확신*(Gewißheit, Überzeugtheit)의 유효성이 부여되는 경우를 주관적인 화법이라고 부른다 (*Ich vermute, daß er vergessen hat, ins Theater zu gehen*). (K.-E. Sommerfeld/G. Starke, 1984:38; B. Werner, 1986:8; Grammatik, 1997:1886).

- 7) 일반적으로 Modus를 '화법'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 넓은 의미의 화법 Modalität은 동사적 화법(Modus)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 8) 직설법과 달리 접속법 2식은 진술내용을 사실로 유효하지 않다고 진술하는 방식이다: *Peter ist krank* vs. *Peter tat, als ob er krank wäre*.

치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점이 의사소통 행위에서 요구되는 ‘확신’-화법어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확신’-화법어의 사용 실태가 교재의 의사소통적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다음 장에서는 두 교재의 대화체 텍스트에 등장하는 ‘확신’-화법어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5. 교재에 나타나는 ‘확신’-화법어의 양상

5.1. ‘확신’-화법어의 4 유형

앞서 예문에서도 보았듯이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화법은 진술 내용이 가진 유효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될 수 있다. 여기서는 편이상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분류하고자 한다⁹⁾:

- (a) 확신: 사건/사실 관계와 진술 내용이 확실히 일치한다고 믿음
- (b) 추측: 사건/사실 관계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믿음
- (c) 의심: 사건/사실 관계와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음
- (d) 부인: 사건/사실 관계와 진술 내용이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음

5.2. 확신의 화법

확신-화법은 대부분 동사의 직설법에 확신, 확실, 보증 등의 의미를 가진 화법적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확신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en의 형태로 등장한다.

- (5) *Ich versichere dir, daß er ein Spezialist auf diesem Gebiet ist.*

9) K.-E. Sommerfeld/ G. Starke, 1984:39f 참조.

이처럼 확신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동사 (ich bestätige, ...; ich stimme darin zu, ...; ich behaupte, ...; ich betone, ...; es steht fest, ...) 또는 의심의 의미를 가진 동사의 부정문(ich zweifle nicht, ...)을 통해 말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이 표현될 수 있다. 분석 교재에서는 이러한 확신의 의미를 갖지 않는 동사가 수 행동사의 형태로 사용되어 확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6) A: Hier Santos, Herr Heiseke, ich habe ein Problem. Mir fehlt ein Paket; könnten Sie mal nachsehen, ob das bei Ihnen liegengeblieben ist? Für Ortman.

B: Das ist doch ganz unmöglich; ich habe doch aufgepaßt beim Einpacken! Da ist nichts liegengeblieben!

A: Bitte, würden Sie trotzdem mal nachsehen?

B: *Ich sage Ihnen doch*, da liegt nichts. (AD 대화12, 34쪽)

(6)에서 A는 소포를 배달하던 중 한 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혹시 창고에 남겨진 소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A의 부탁에 대해서 B는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A가 여전히 미심쩍은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하자, 이에 대해 B는 강한 확신을 담고 있는 *ich sage Ihnen doch*를 덧붙이면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와 유사한 형태인 *glauben*의 예를 보자:

(7) A: Mit dem Schiff wollen Sie fahren, Herr Arendt? Verlieren Sie da nicht viel Zeit?

B: Die Schiffsreise dauert ungefähr 14 Tage. Ich habe mir überlegt, daß man das sehr gut mit dem Urlaub verbinden kann. (...) *Ich glaube*, es ist eine gute Idee. Urlaub mit dem Schiff. (...) (AD 대화 4, 46쪽)

B는 배를 타고 가면서 휴가를 즐기려는 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좋은 아

이다어임을 주장(Behauptung)하고 있다. 이때 화자는 *ich glaube*라는 표현을 통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위의 예처럼 일반적으로 믿음, 의견, 생각, 견해의 의미를 가진 *denken, finden, meinen* 등의 동사들도 종종 상황에 따라 확신을 담고 있는, 그러나 조심스러운 또는 겸손한 의견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¹⁰⁾

수행동사의 용법 외에 확신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sein*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진술 내용의 사실 일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8) *Ich bin sicher, daß ich das Paket mitgenommen habe.* (AD 단원 12, 구문연습, 38쪽)

마찬가지로 *ich bin überzeugt davon, ...; es ist sicher, ...; etwas ist (jemandem) gewiss ...* 등도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화법어로 쓰인다. 이러한 형용사에 수식어를 첨가함으로써 확신의 정도를 강조한다.

(9) *Ich bin fast/ziemlich/durchaus/ganz/völlig sicher, daß er kommt.*

일반적으로 확신 정도를 표시하는 화법어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가 화법 부사 *Modaladverb*이다:

(10) A: *Aber was kann ich seiner Frau mitbringen? Können Sie mir einen Rat geben?*

B: *Blumen sind für Frauen immer richtig!*

A: *Sehr gut, vielen Dank für Ihren Rat! Den Kindern will ich Schokolade und Bonbons mitbringen. Das macht ihnen bestimmt Freude.* (DSA 대화 6, 38쪽)

10) 상황에 따라 이러한 동사들은 조심스러운 '추측'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bestimmt* 외에 말하는 이의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부사는 *sicherlich*, *zweifellos*, *offensichtlich*, *offenbar*, *tatsächlich*, *wirklich*, *selbstverständlich* 등이 있다. 화법어로 사용되는 부사는 일반 부사(예문 12)와 달리 부정어가 화법어 뒤에 놓인다:

(11) Das ist *sicher* nicht falsch. (DSA 대화 6, 38쪽)

(12) Er kommt nicht *pünktlich* zu seinem Büro.

이밖에 두 교재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실재 등의 의미를 가진 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Zweifel*이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어 강한 확신을 표현한다: *in der Tat*, *in Wirklichkeit*, *aller Wirklichkeit nach*; *ohne Zweifel*; *etwas steht außer Zweifel*; *es besteht kein Zweifel*, ...; *ich habe kein Zweifel daran*, ...

교재 AD 또는 DSA에 등장하는 화법어 가운데 (강한) 확신을 표현하는 화법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D	DSA
수행동사	<i>ich glaube</i>	o	o
	<i>ich sage</i>	o	x
	<i>ich finde</i>	o	x
형용사	<i>ich bin sicher</i>	o	x
부사	<i>sicher</i>	o	o
	<i>bestimmt</i>	o	o
	<i>natürlich</i>	o	x
	<i>wirklich</i>	o	o

5.3. 추측의 화법

일반적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화법적 표현 수단은 확신의 경우에 비해 훨씬 다양하다. 그리고 두 교재에 나타난 화법어의 유형을 비교하더라도 추

측-화법어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동사의 미래형이 미래의 의미가 아닌 추측-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13) A: Das ist wirklich eine wichtige Frage. Ich kann mir schon denken, daß die Professoren bei ihren Vorlesungen nicht an die ausländischen Studenten denken. Sie *werden* schnell sprechen und vielleicht auch nicht so deutlich, wie im Unterricht.

B: Da haben Sie recht. (...) (DSA 대화 18, 190쪽)

독일에서 공부를 하려는 계획을 세운 A가 B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어려움을 말하는 장면이다. 교수가 외국인 학생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빠른 말로 강의를 할거라는 추측이 *werden*을 통해 나타난다. 이때 함께 쓰인 다른 화법적 표현(밑줄친 *vielleicht*)이 추측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이러한 동사의 미래형 *werden*은 종종 wohl과 함께 사용되어 추측의 의미를 강조한다.

(14) A: Können Sie ganztags arbeiten?

B: Nein, ich dachte so an drei, vier Stunden. Mehr kann ich leider nicht. (...)

A: Dann gehen Sie jetzt mal runter und sprechen Sie mit Herrn Lohmann. Der wird Ihnen alles erklären. Sie *werden* ihn jetzt wohl unten im Hof finden. (AD 대화 7, 103쪽)

문법적으로 직설법 외에 접속법 II식을 통해 추측-화법이 표현된다:

(15) A: Dem Kollegen Löffler wurde erklärt, daß man ihn in der Abteilung nicht mehr braucht. Dabei ist er schon über 20

Jahre bei der Firma!

B: Der wird es nicht leicht nehmen, einen neuen Job zu finden, er ist ja schon älter ...

C: Da fällt mir ein, bei uns in der Verwaltung ist gerade eine Stelle freigeworden, da brauchen wir jemand, der einfache Büroarbeiten macht (...). Das *könnte* doch der Löffler machen. (...)

D: Damit *wäre* das Problem doch gelöst. (AD 대화 22, 40쪽)

예문 (15)는 직장에서 동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문제로 회의를 하는 대화이다. C와 D는 각각 접속법 II식의 *könnte*와 *wäre*를 통해 Löffler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라고 짐작하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15)에서 보듯이 화법조동사가 추측의 화법에 사용된다. 같은 용법을 위해 화법조동사 *können*은 다음과 같이 직설법의 형태로도 쓰인다:

(16) *Es kann sein*, daß er morgen kommt. (AD 단원 2, 문법 설명, 43쪽)

이외에도 추측을 나타내는 *müssen* 동사가 직설법 또는 접속법의 II식의 형태로 교재 AD의 대화체 텍스트에 등장한다:

(17) A: Wenn der erst da zum Stehen gekommen ist, *muß* er aber wirklich zu schnell gefahren sein. Bestimmt mehr als 50.

B: Das ist nicht wahr! Reden Sie doch nicht so dumm!

C: Das werden wir alles noch feststellen. (AD 대화 13, 56쪽)

(18) A: Das *müßte* ganz gut gehen. als bei uns in der Abteilung einer krank war, hat er auch schon Listen und einfache Begleitbriefe geschrieben, sich um Reklamationen gekümmert usw. - Ich finde, das wäre eine gute Lösung. (AD 대화 22, 41쪽)

화법조동사 *müssen*이 접속법 II으로 사용된 (18)의 경우는 일반적인 추측의 의미를, 직설법 형태를 가진 (17)의 경우는 보다 강한 추측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17)에서는 *müssen* 동사가 *wirklich* 또는 *bestimmt*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보다 강한 주장을 강조하며, (18)에서는 *müssen*이 문맥상 *wäre*와 호응하여 추측의 의미가 뚜렷해진다. 이와 같이 실제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종종 비슷한 의미의 화법어가 함께 사용되거나, 같은 유형의 화법어들이 일정한 문맥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문 13, 14, 19, 21 참조). 이밖에 *mögen*, *dürfen*, *sollen* 등의 화법조동사도 다양한 추측의 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화법조동사 외에 추측, 가정, 예측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수행동사의 형태로 사용되거나 (예문 19), *scheinen* 동사를 통해 추측의 화법을 표현한다 (예문 20):

(19) A: Karin, ich habe gestern einen Freund besucht -

B: - wohl eher eine Freundin, *nehme ich an*. (AD 대화 18, 154쪽)

(20) A: Sie - daß ich Sie hier treff' - also darauf habe ich schon die ganze Zeit gewartet - Sie, ich red' mit Ihnen!

B: Mit mir?

C: Der *scheint* ja ganz schön blau zu sein.

D: Ein Betrunkner! Ich hab's ja gewußt! (AD 대화 23, 63-64쪽)

교재 속에서 추측을 나타내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 수단은 화법 부사로 추측, 가능 등의 의미를 갖는다: *wohl*, *vielleicht*, *vermutlich*, *scheinbar*, *anscheinend*, *mutmaßlich*, *möglicherweise*, *eventuell*, *wahrscheinlich*, *höchstwahrscheinlich*.

(21) A: Gilt diese Zeugnis denn auch für eine deutsche Universität?

B: Das wird die Universität entscheiden. *Vielleicht* wird man

Ihnen die Zulassung nur unter der Bedingung geben, daß Sie ein Studienkolleg besuchen. (DSA 대화 18, 189쪽)

(22) A: Siehst du dir nachher das Spiel an? 1. FC Köln gegen den Hamburger SV.

B: Ich weiß noch nicht. Ich würde gern ... Meine Wirtin will aber *wahrscheinlich* lieber diese blöde Operette im Zweiten Programm sehen. (...) (AD 대화 19, 174쪽)

확신-화법의 경우와 같이 가정, 추측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es ist wahrscheinlich, ...; es ist möglich, ...)와 명사 (in der Annahme, daß ...; meine Vermutung, daß ...; dem/allem Anschein nach; mit großer Wahrscheinlichkeit)가 추측-화법에 사용될 수 있으나 두 교재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중심으로 교재 AD 또는 DSA에 제시된 추측-화법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D	DSA
동사의 미래형 werden (wohl)	o	o
화법 조동사 können/könnte	o	o
müssen/müsste	o	x
동사의 접속법 II식	o	o
동사 ich nehme ... an	o	x
scheinen	o	x
부사 wohl	o	x
vielleicht	o	o
wahrscheinlich	o	x

5.4. 의심의 화법

교재 AD와 DSA에서는 확신 또는 추측의 화법어와 달리 진술의 내용의

진위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화법어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두 교재에 등장하는 대화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심 또는 부인 화법은 비타협적intransigent 성격의 대화¹¹⁾, 즉 대화참여자의 이해가 상충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 또는 의지를 관철 시키려는 형식의 대화(논쟁, 말다툼)에 많이 등장하는데, 두 교재 속에는 이런 유형의 대화체 텍스트가 거의 없다. 아래 (23)은 형용사 unwahrscheinlich를 사용한 의심-화법의 한 가지 예다:

(23) A: (...) Haben Sie vielleicht bei einem Kunden ein Päckchen zuviel abgegeben?

B: Daran habe ich auch schon gedacht. Aber das ist doch ziemlich unwahrscheinlich.

A: Dann müssen Sie es unterwegs verloren haben. (AD 대화 12, 35쪽)

먼저 A는 B가 소포를 배달 하던 중 어떤 고객에게 소포 하나를 더 인도 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이에 대해 B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자, A는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높다고 주장한다. 예문 (23)에는 세 가지 화법어, 즉 vielleicht - wahrscheinlich - müssen의 의해 사실 관계를 바라보는 대화 참여자의 주관적인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약한 추측 - 의심/추측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 강한 추측>

두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그 외의 표현 수단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K.-E. Sommerfeld/ G. Starke, 1984:43):

11) F. Hundsnurscher, 1994:222.

간접 화법에 등장하는 접속법 II식	(예문) Sie sagt, sie <i>wäre</i> in der Zeit zu Haus gewesen.
수행동사	ich zweifle daran, daß ...; ich bezweifle, ...
명사	(예문) Mir kommen langsam <i>Zweifel</i> , ob er kommt.
형용사	es ist fraglich, ob ...; es ist unsicher, ob ...; es ist ungewiss, ob ...; es ist zweifelhaft, ob ...
동사의 미래+ kaum	(예문) Es ist spät. Jetzt <i>wird</i> sie <i>kaum</i> noch kommen.
부사	angeblich, scheinbar

5.5. 부인의 화법

5.1.에서 규정했듯이 부인否認-화법은 사건 또는 사실 관계와 상대 또는 자신의 진술 내용이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는 진술방식이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24) *Ich glaube nicht*, daß er krank ist. (AD 단원 2, 문법 설명, 43쪽)

말하는 사람은 동사 *glauben*의 부정을 통해 ‘그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동사 *glauben*에 *nicht*를 첨가함으로써 확신의 화법이 부인의 화법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다른 모든 화법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교: 예문 25의 b):

(25) (a) *Ich vermute*, daß er das Paket mitgenommen hat. (추측-화법)
 (b) (*) *Ich vermute nicht*, daß er das Paket mitgenommen hat.

부인의 화법이 등장하는 또 다른 예는 앞서 5.2.에서 고찰한 예문 (6)의 대화 내용에 들어 있다. 해당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25) A: Hier Santos, Herr Heiseke, ich habe ein Problem. Mir fehlt ein Paket; könnten Sie mal nachsehen, ob das bei Ihnen

liegendeblieben ist? Für Ortman.

B: Das ist doch ganz *unmöglich*; ich habe doch aufgepaßt beim Einpacken! Da ist nichts liegendeblieben! (AD 대화12, 34쪽)

A는 소포를 배달하던 중 한 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혹시 창고에 남겨진 소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상대의 추측 내용에 대해서 B는 *unmöglich*라는 화법어를 사용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그 밖에 교재에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부인, 반박, 부정 등의 의미를 가진 수행동사 (ich bestreite ...)나 부사(keinesfalls, mitnichten)등이 사용된다.

5.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상이한 교수법에 따라 작성된 독일어 교재,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DSA)와 'Aufbaukurs Deutsch(AD)에 나타난 '확신'-화법어의 양상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교재의 의사소통적 성향과 '확신'-화법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 의사소통 중심 교재로 분류된 AD와 문법 중심 교재로 규정된 DSA의 차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교재의 구성 및 대화체 텍스트와 비대화체 텍스트의 비율에서 뚜렷한 대조: AD에는 상대적으로 대화체 텍스트의 비중이 높으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모든 언어사용 형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두 교재는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두드러진 의사소통적 성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D의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적 주제와 대칭적 대화가 많이 제시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자의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절한 의사소통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재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는 기준으로 '확신'-화법어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AD에는 DSA에 비해 각 유형별로 다양한 ‘확신’-화법어가 등장하며, 사용 빈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적했듯이 적절한 ‘확신’-화법어의 사용은 곧 말하는 사람이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특정한 의사소통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진술 내용의 사실 일치 여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재 AD가 ‘확신’-화법의 사용 측면에서도 의사소통 지향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확신’-화법어의 양상이 교재의 내용적 특성, 즉 의사소통적 성향을 결정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 글의 주목적은 교재 분석, 특히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바라 본 교재 분석의 한 가지 예를 제시하는 데 있다. 교재 분석은 교재의 구성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구분하고, 각각의 핵심 요소를 선정,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해나가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육 및 교재 연구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 그리고 경험적 분석에 필요한 틀과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작업 없이 의사소통 교육을 외치는 것은 한낱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형욱: 외국어 수업을 위한 교재 개발의 원칙.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제5권 2호. 1999, 253-272.
- : 의사소통 중심 독일어 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석.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제7권 1호. 2000, 235-266.
- 조국현: 의사소통기능적 문학 텍스트 관찰과 외국어 교육.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제5권 1호. 1998, 271-291.
-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Band I, II, III, Berlin/New York 1997.
- Griesbach, Heinz / Schulz, Dora: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4. Auflage, München 1968.

- Grundfragen der Kommunikationsbefähigung, von einem Autorenkollektiv u. Ltg. von G. Michel, Leipzig 1985.
- Hundsnurscher, Franz: Dialog-Typologie. In: G. Fritz/F. Hundsnurscher (Hrsg.): Handbuch der Dialoganalyse. Tübingen 1994, 203-238.
- Lenke, Nils/Lutz, Hans-Dieter/Sprenger, Michael: Grundlagen sprachlicher Kommunikation, München 1995.
- Rautzenberg, Anke/Rautzenberg, Jörg: Aufbaukurs Deutsch Teil I, II, III 1991.
- Searle, John R.: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1969. Übersetzung: Sprechakte. Ein sprachphilosophischer Essay, Frankfurt a. M. 1983.
- Sommerfeldt, Karl-Ernst / Starke, Günter: Grammatisch-semantische Felder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Leipzig 1984,
- Ungeheuer, Gerold: Kommunikationstheoretische Schriften I: Sprechen, Mitteilen, Verstehen, Achen 1987.
- Werner, Bernd: Zum Verhältnis zwischen semantischen Merkmalen der Modalität und funktional-kommunikativen Merkmalen der Kommunikationsverfahren - ein Beispiel der Beziehungen zwischen funktional-semantischen Feldern und funktional-kommunikativen Feldern/ Kommunikationsverfahren, Leipzig 1986.

Zusammenfassung

Pragmatische Analyse sprachlicher Ausdrücke der Überzeugtheit-Modalität in den Lehrbüchern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Cho, Kuk-Hyun (Hankuk Uni. of Foreign Studies)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sprachlicher Ausdrücke der Überzeugtheit-Modalität in den Lehrbüchern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unter dem Aspekt der Pragmatik zu analysieren. Als Untersuchungsmaterial werden zwei Lehrbücher gewählt, die in einem Deutschunterricht an der Hankuk Universität für Fremdsprachen benutzt worden ist oder benutzt wird: Deutsche Sprachlehre für Ausländer (kurz: DSA) und Aufbaukurs Deutsch (kurz: AD).

Das erstere gilt als grammatikbezogen, das zweite als kommunikationsorientiert. In AD kommen dialogische und monologische Texte im Verhältnis 5 zu 3 vor, während in DSA monologische Texte 70% aller Texte betragen. Es ist zu beachten, dass DSA relativ mehr asymmetrische Dialoge enthält, in denen ein Gesprächsteilnehmer auf Kenntnisse, Fähigkeiten oder Hilfe eines anderen angewiesen ist. Jeder Gesprächsteilnehmer übernimmt eine konventionell festgelegte Rolle. Asymmetrische Dialogen sind in der Regel standardisierte Dialogformen wie Wegauskunft oder Verkaufsgespräch. Im Vergleich zu DSA sind 25 von 29 Dialogen in AD symmetrisch.

Der symmetrische Dialog ist ein Dialog, dessen Teilnehmer sich in "gleichberechtigter" Position befinden. In symmetrischen Dialogen versucht z.B. ein Gesprächsteilnehmer einen anderen zu überzeugen, um seine eigenen Interessen durchzusetzen oder zwei (oder mehrere) Gesprächsteilnehmer bemühen sich zusammen, um ein gemeinsames Ziel

zu erreichen.

Bei der empirischen Untersuchung von DSA und AD lässt sich feststellen, dass modale sprachliche Mittel, die zum Ausdruck der Überzeugtheit dienen, häufig in symmetrischen Dialogen vorkommen. Ein solcher Ausdruck stellt ein kommunikativ relevantes Element sprachlicher Handlung dar. Bei der Überzeugtheit-Modalität handelt es sich nämlich um den Grad der Überzeugtheit des Sprechers, also um die sprecherseitige Einschätzung des Geltungsgrad des Inhaltes einer sprachlichen Äußerung in ihrer Beziehung zur objektiven Realität. In einer sprachlichen Äußerung drückt man seine Gewissheit, Ungewissheit, Vermutung, seinen Zweifel aus. Aus der Analyse dialogischer Texte ergibt sich, dass sprachliche Ausdrücke der Überzeugtheit-Modalität in AD viel häufiger und vielfältiger vorkommen, als in DSA.